



2023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3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딩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주거대안공간 설립과 더불어, 전국에 있는 청소년 쉼터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홈 프라이드 홈(Home, PRIDE HOM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직의 재무제표 및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후, 누적기부금 총액 (~2021) : 1,664
- 설립 후, 연도별 기부금 수입 내역: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기부금	110	152	236	251	296	273	346	1,664

	2019년(연말)	2020년(연말)	2021년(연말)
총 자산	70	92	173
부채	0	0	0
순자산	기본재산	0	0
	보통재산	70	92
수익 총계	327	281	350
비용 총계	299	259	269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및 위기지원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하고 의료·법률·주거·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신을 긍정하고 고립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지 자원 발굴, 연계	청소년 성소수자 참여 프로그램, 청소년 기관 대상 교육 및 자문, 지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 지지망을 형성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옹호, 사회 변화	인권 옹호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연구 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정책 및 사회 변화를 촉구합니다.
--------------------------------------	--------------------------------------------------------------------------------------------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상담 #세이프스페이스

Brianimpact ImpactGround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1. 없는 존재, 청소년 성소수자

“일단은 저는 (성 정체성을) 무조건 숨겼죠. 무조건 숨겼죠. 그건 생존본능이라고 생각해요. (...)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랑 똑같았죠.”

시원 (02년생, 게이)

- 많은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을 비롯해 가장 ‘나’다운 모습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포용하기보다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는 교육 속에서 인지적 고립을, 나 같은 사람이 혼자인 것만 같은 정서적 고립을, 정체성을 알게 되면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까 하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한국 사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겪는 진로/진학, 또래관계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벽을 마주합니다.
-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기 어렵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존재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할 자원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상담과 지원 기관들이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것 같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리라고 신뢰할 수 없고(아우팅 불안), 심지어 지원받아야 할 기관으로부터 무지하거나 혐오적인 발언을 듣게 되면서, 마땅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자원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식의 부재, 교육의 부재, 정책의 부재가 결합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체 상담 건수	186,336	178,128	172,998	163,377	123,0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소수자 관련 상담 건수	70	102	83	67	60
땡동 상담 건수	314	315	347	400	487

<2021년 국정감사,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 2021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전국 238개 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 중 성소수자 관련 상담건수는 평균 0.05%**로서, 땡동이 한 해 동안 진행한 상담 건수보다 약 6배 적었습니다.
- 또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지원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중 지난 5년 간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진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10년 동안 한 건의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B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과 체계에서 누락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민간 단체인 땡동을 유일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는 많은 이들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는 많은 가족, 교사, 실무자들 역시 땡동에 상담과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자문 요청 46건).

^A <2021년 국정감사에서 땡동과 권인숙의원이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에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는 장면**>

^B 경향신문, 2021. 10. 21. 5년간 청소년 지원기관 성소수자 직무교육 '0건'...상담실적도 민간보다 저조

- 2015년 1월 핑동이 상담을 시작한 이래 2021년 12월까지 누적된 상담 및 위 기지원 건수는 3,196건(연평균 456건)이며, 2021년 1년 간 카카오톡 채널을 통 한 청소년들과의 소통은 2,583건(월 평균 215건)에 달합니다. 어떤 국가 통계에 서도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과 위기의 심각성이 핑동 상담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나답게 살 수 없는 집과 쉼터

“(집에 제가 성소수자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좀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는 ‘너 여자로 산다고 안 하면 너 그냥 내손으로 죽일 거다. 너를.’ 하면서 칼까지 가 저오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나랑 약속해라’ 그러시는데 되게 진짜 안 꿇으면 죽 을 것 같은(느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꿇고 (여자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죠.”

해솔 (98년생, 당시 19살, 트랜스젠더남성 이성애자)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질환으로 여겨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받게 하거나, 정서 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핑동이 2021년 탈가정 을 고민한 적이 있거나, 실제로 경험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64.7%가 가정폭력을 탈가정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고, 특히 탈가정 경험이 있 는 경우에는 85.5%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성소수자 인권 인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가정과 학 교 안에서 자기자신을 숨기고, 얼마 안 되는 지지 자원을 찾아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집을 나온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신적 안정, 신체적 안 전을 구하고자 하는 생존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한국에는 총 137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 다.^c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가정폭력과 탈가정 실태는 사회적으 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변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보니 청소년 쉼터 종사자들 은 성소수자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 지어 일부 쉼터들은 성 정체성에 대한 폭력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 성소수자들 에게, 성 정체성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성별이분법적으로 공간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마음 편 히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c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

3. 안전하지 못한 학교

“수업시간에 대뜸 갑자기, ‘야 니네는 동성애 하지마라’ ‘야, 내가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그 영상 보니까 더러워 더러워’ 이러셨어요”

연우 (00년생, 당시 17살, 남성 동성애자)

- 서울시교육청의 2017년 통계에 의하면 13.3%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하고, 33.4%의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D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사용 지침에는 노골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지도: 허용되지 않음”이라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학교와 교육당국은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중 98.0%는 교사나 또래 학생들로부터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고, 20.0%는 교사로부터 괴롭힘이나 모욕을, 54.4%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E

- 혐오와 차별을 견디다 못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택하는 결과는 전학, 결석, 자퇴, 진학 포기 등의 이탈입니다.^E 탈가정을 겪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탈학교 이후 청소년 지원 체계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해볼 때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꿈을 그려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4. 가중되는 위기, 트랜스젠더 청소년

“TV에서 트랜스젠더 분들이 나오는 EBS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 동생한테 ‘너 저러면 쫓겨난다.’ 이런 얘기하시고. ‘근데 엄마 내가 저러면 어떨 거 같아?’라고 말했던 거 같아요. 떠났는데, ‘호적에서 파일 줄 알아’. (라고 하셨어요.)”

지원 (98년생, 당시 19살, 여성 동성애자)

^D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학생의 성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

^E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비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비해 약 5.6배 더 높은 신체적 폭력과 약 3배 더 높은 따돌림을 경험합니다.^F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한 학업 이탈과 정신건강상의 위기로, 15~18세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명 중 1명 꼴(21.2%)로 학업중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G
- 최근 몇 년 간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차별적인 사회는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그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땡동을 찾는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성별정체성을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땡동을 유일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트랜지션, 진로와 학업/탈학교, 디스포리아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5. 지역일수록, 더 부족한 자원

“성소수자 관련 행사나 모임이 열려도 비서울권은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느낌이 든다.”

부산 거주 청소년, 01년생, 젠더퀴어 범성애/무성애자 ^H

- 수도권 외 지역은 청소년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의 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쉼터는 서울에 17개소, 경기도에 33개소가 있지만, 전라남도에는 4개소, 경상남도에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기관은 더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사회 안에서 아우팅 불안, 정체성 고민과 고립감 등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땡동에는 전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서 상담 및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연계할 자원이 없어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 가장 많은 상담건수, 위기의 정신건강

- 땡동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자해 등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를 일상적으로 목격합니다. 실제로 땡동을 찾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F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G 서울신문, 2021. 12. 12. 청소년 트랜스젠더 5명 중 1명, 낙인 찍은 학교 떠났다

^H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2019) <비서울 지역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차별 설문조사>

이슈는 정신건강 · 심리문제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거나 오히려 부정당하며, 성소수자 롤모델이 사회적으로 빈곤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느끼는 현재의 괴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조사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53.3%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 그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슬픔을 서로 위로하면서도, 위기지원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 바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동’입니다. **땡동은 그 어떤 자원도, 정책도,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지원 대상: 청소년 성소수자

- 땡동이 타겟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는 국내에 총 몇 명이 있을까요? **통계의 부재는 그 자체로 대상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공공기관 통계조사에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실제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영역에서 성소수자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몇 가지 연구조사에 기대어 그 수를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일례로 2017년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3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의 성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에 의하면 13.3%의 응답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2.7%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¹ 실제로 많은 성소수자들이 아동기에서부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 정체성을

¹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한국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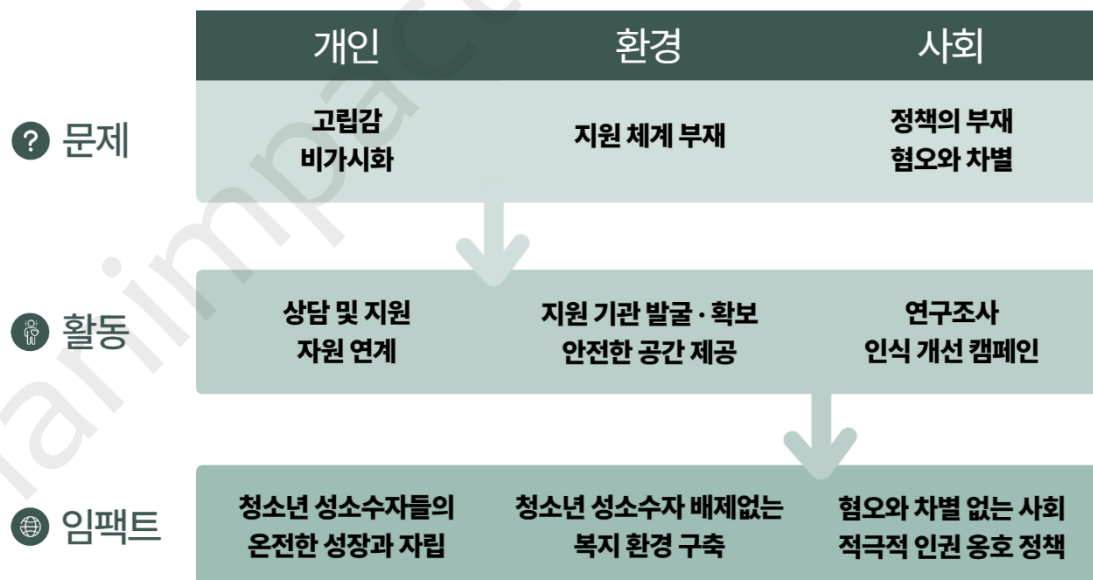
² 여성신문, 2017.12.13. 차별과 혐오로 물든 교실, 소년들을 망친다.

최초로 인지한 시기는 평균 14.7세였고, 성소수자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시기는 평균 17.8세였습니다.^ㄱ

- 이처럼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탐색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청소년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보호해야 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국 청소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와 자기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 나서며, 스스로 지지 자원을 만들어 나가곤 합니다. 핑동은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비빌 언덕으로서,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이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자아존중감과 자긍심을 얻도록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프레임 워크

- 핑동은 청소년 한 명 한 명에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 성소수자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개입해 성소수자 친화적으로 바꾸어 낼 때 개인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ㄱ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2022.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청소년 성소수자 개인

- 상담과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여, 당사자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전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갑니다. 땡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 청소년 모두를 포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순위: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 (가정폭력/탈가정, 성폭력, 자살 위기 등)
 - 쉼터 등 당장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레인보우키트(생필품 지원)를 비롯한 종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2순위: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 (정신건강 이슈, 탈학교 등)
 - 아웃리치를 통해 사례를 발굴하고,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긍심 형성을 돕습니다.
 - 3순위: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 청소년 성소수자
 - 인식 개선과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제반 조건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주변 환경

- 땡동은 2015년 설립 초기부터 의료기관, 심리상담 기관, 청소년쉼터 등 성소수자 친화적인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영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연계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과 학교, 청소년 기관 등에 성소수자 인권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 성소수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살아가는 사회

- 청소년 성소수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땡동은 당사자들의 호소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례들을 추적, 분석하고, 사회적 목소리로 모아내고 있습니다. 인권 옹호 캠페인과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진전이 청소년 성소수자 개인과 일상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1. 당사자 중심의 커뮤니티 지원

‘학교나 집에서는 밝히지 못하는 내 정체성과 지향성을 숨기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의미가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위안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며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매달 갈 수 있는 곳이 생기는 안식처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논바, 01년생, 젠더퀴어 범성애자^ㄴ

- 땡동은 청소년 복지 현장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활동 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생겨난 단체로서, 현재도 커뮤니티를 통해 기존 청소년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1:1 상담에서 부족한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 단체**라는 복합적인 특성은 땡동이 가진 차별성이자 장점입니다.
- 땡동은 기존 청소년 복지체계에 따른 청소년 지도, 청소년 상담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당사자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게끔 합니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중요한 것은 롤모델의 존재, 커뮤니티와의 연결입니다. 식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땡동식당’은, 직접 자원해 참여한 성소수자 당사자 또는 앨라이(ally) 세프로부터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자립 프로그램 ‘T-GO’(2019-2021) 중 성인 트랜스젠더 멘토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책(휴먼라이브러리)’ 역시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 또한 땡동은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내담자로만 위치 짓지 않으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역량 강화이자 자립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러쉬코리아(LUSH) 채리티팻 지원으로 진행된 ‘프라이드파티’에서는 당사자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자긍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립 프로그램 ‘레인보우 내비게이션’(2017-2018)은 수료 청소년들을 자문단으

^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2019, 땡동포차 활동보고회 발표 원고 "청소년 성소수자가 안전한 유일한 공간, 땡동포차"

로 초대하여, 다음 기수에 대해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땡동이 만나온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야간에 운영한 거리이동상담 '땡동포차' 일정에 맞추어 인근에 자체적인 모임 수 있는 공간을 꾸리고, 서로 교류하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2. 부재를 존재로, 안전한 공간의 확장

- 땡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과의 **1:1 상담을 넘어서서 이들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세이프스페이스'**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해 가시화되지 않았던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와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은 땡동 활동이 갖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 또한 땡동은 고립된 자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모두가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의 지지망이 되기를 꿈꿉니다.** 한 기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둘러싼 환경이 모두 이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상담·지원 영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 **땃동은 현재 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유일한 NGO 단체입니다.** 2014년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2017 3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 1천 명이 넘는 후원인과 함께하며 인큐베이팅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설립부터 모금 및 기부자 소통, 내부 역량 강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100% 민간의 후원과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안정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단행본 ‘홈, 프라이드 홈’으로 발간되었습니다.^M

- 땃동은 다양한 연대 활동, 인권 옹호 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며, 땃동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N

^M <홈, 프라이드홈: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동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2>. 우승연 지음. 2020. 아모르문디.
^N 연합뉴스, 2018. 11. 22. '살색부터 형제복지원까지' 설립 17주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

1. “더 깊게” 상담과 지원

- **땡동의 운영위원 10명은 각 심리상담가, 인권활동가, 청소년 기관 종사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며, 자원활동가들 역시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땡동의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며 활동에 함께하는 인적 자원들이기도 합니다. 7명의 상임활동가들은 정기적인 상담사례회의와 역량 강화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의 성장과 함께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왔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쿼어문화축제, 거리이동상담 등 사례 발굴을 통해 연간 상담 건수가 2015년 200여 건에서 현재 5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거리이동상담 (프로그램명 : 땡동포차)에서는 1,146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외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연 인원 500명 이상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2019년에는 원스톱 법률지원 기금 마련 캠페인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모금으로 상근변호사를 채용, 내부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때문에 성폭력, 가정폭력, 아우팅 등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주거 지원 공간 마련을 땡동의 다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더 넓게” 네트워크 확대

“청소년과 함께 하면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생각과 고민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고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o

- 센터가 위치한 서울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땡동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땡동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성소수자 친화적 자원이 부족하고, 고립감 등 보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함께 한 끼 식사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움직이는 땡동식당 전국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7년에는 3곳(대구, 부산,

^o 2019년 무지개도움닫기 교육 참여자 후기 중에서

광주), 2018년에는 4곳(대구, 광주, 전주, 제주)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 종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보나 조언을 구할 곳을 알지 못해 혼자 애를 쓰거나 갈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동이 마련한 교육, 네트워크 자리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무지개도움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위기 지원 목적에 맞춘 자료를 개발하고, 6개 지역(대구·인천·수원·부산·대전·창원)의 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네트워킹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총 204개 기관에 평동의 존재와 교육 기회를 알리고,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및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2021년에는 탈가정을 경험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보고서를 발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동시에 진행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청소년쉼터(당시 기준 147곳)에 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전국 쉼터들에 청소년 성소수자의 가정폭력 및 탈가정 실태, 청소년 기관 이용 현황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동은 청소년 성소수자 주변에 선 이들과 끊임없는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연결됨’이 더 큰 성공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3. “더 높게” 정책·제도 개선

- 평동은 누적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고 이탈된 경험을 드러내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사회가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외부 교육, 자문 및 토론에 한 해 50건 이상 참여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땡동은 상담에서 확인한 문제에 대해, 공감과 경청이라는 방법 이외에도 대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대응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환치료'의 문제점을 대사회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p 이 성과는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처음으로 포함된 '성소수자 학생 보호'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서울시교육청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치열했던 캠페인의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q

^p 한겨레, 2016. 3. 7. '동성애' 치료한다며 "귀신 들렸다" 무자비 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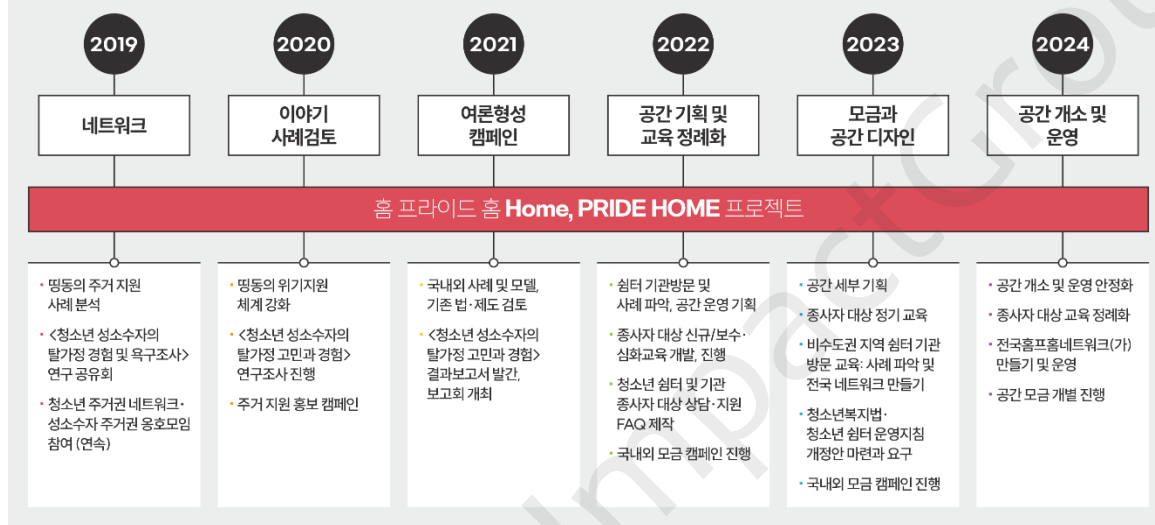
^q 한겨레, 2021. 4. 1.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 명시해 지원

■ 제3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임팩트 그라운드를 통해 3년간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는다면, 어떤 요소를 해결하고 싶은가?

1. 청소년 성소수자 주거 지원의 새로운 모델, 홈 프라이드 홈 원스톱 주거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홈 프라이드 홈 로드맵

1) 주거 공간 설립과 운영

- 핑동의 '홈프라이드홈' 프로젝트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 중 첫 번째는 탈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주거 공간 마련, 24시간 긴급 주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핑동이 제공하는 통합적인 지원 속에서도 주거 지원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기존 청소년쉼터의 성별이분법,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쉼터를 '쉼터'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가족과의 갈등과 폭력 때문에 탈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사회적으로 부재하고, 특히 성별이분법적인 사회 속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는 고시원 같은 다른 주거 공간도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갈 곳이 없어 핑동 센터 앞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차라리 쉼터 대신 길거리에서 자는 것을 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핑동은 만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복지 체계의 변화

- '홈 프라이드 홈 프로젝트'의 두 번째 중요한 목표는 전국의 청소년쉼터를 비롯한 **청소년 복지 체계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상담 및 지원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성 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말합니다. 핑동은 현장 종사자 교육, 지원 가이드/매뉴얼 발간, 연계와 네트워킹을 통해 전국에 '홈 프라이드 홈'을, 자긍심을 갖고 나 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집 다운 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2. 청소년 성소수자가 꿈꿀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방법 찾기

-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혐오표현과 괴롭힘, 폭력의 결과로 학교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탈학교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진로/진학, 자립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른바 '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성인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에, 성소수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 특히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 자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꿈꿔온 학교와 직장에서 정체성을 이유로 부정 당하는 모습들을 접하며,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의 가능성 자체를 그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핑동은 탈가정 경험이 있거나 트랜스젠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회기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험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핑동은 **별도의 진로지원센터를 구축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진로를 찾고,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지역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접점 확대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거점 만들기

- 땡동을 찾는 청소년 성소수자 중 약 70%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R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는 전화, 화상채팅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 환경에서 적절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나마 부족한 성소수자 친화적인 자원마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땡동은 기존에 시도했던 네트워크 경험과 자원들을 기반으로 **지역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보다 긴밀한 연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위기지원의 연계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부산/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수도권 외의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고자 합니다. 대면으로는 긴급한 위기 상황을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개입하고, 비대면으로는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 자원을 활용한 상담원 및 사례 관리자를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4. 전문 심리상담 지원 체계 마련

정신건강 전문 책임 상담원 배치

-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자살위기는 해외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슈입니다.^S 이는 지금 당장의 위기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간 정기적인 상담사례회의, 개인 및 그룹 전문가 슈퍼비전, 전원 DBT(변증법적행동치료) 과정 수료 등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지만, 자원의 부족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상담 자원과 연결되기 힘들었던 고위기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객원 상담사를 연결해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위기가 확연히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및 지원에서 정신건강이 핵심적인 이슈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내부 전문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보다 튼튼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R 2021년 땡동 상담 및 위기지원 결산

^S Thetrevorproject, 2021. "Estimate of How Often LGBTQ Youth Attempt Suicide in the U.S."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

지원금이 주로 사용될 분야와 사업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기술

1. 홈 프라이드 홈 구축

- 야간 지원 확대와 24시간 운영 체계 수립
- 청소년 기관 종사자 교육 정보 제공, 네트워크 강화

2. 자립 지원

- 다양한 직업 체험/훈련, 교육 기회 연결
- 자립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 지원

- 부산·영남권 거점 설립 및 시범운영
- 지역 프로그램 운영 (땃동식당, 땃동포차 & 종사자 교육 등)
- 지역 연계 자원 발굴, 확보에 주력

4. 심리지원

- 심리상담 전문 책임상담원 제도 도입
- 자살, 자해위기 관련 활동가 역량강화
- 청소년 성소수자 심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금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1. 홈 프라이드 홈

- 땃동이 오랜 토론과 국내외 자문을 통해 기획하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대안 주거 공간 '홈 프라이드 홈'은 **한국 최초의 청소년 성소수자 긴급 주거지원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유일무이한 사례와 경험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다른 청소년 기관 및 쉼터들과 공유하고, 땃동의 지원 모델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고 지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사회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를 확대하는 ‘홈 프라이드 홈’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는 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모, 교사, 현장 종사자 등 청소년 성소수자 주변의 많은 자원들을 변화 시킴으로써 제도와 정책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전국에 있는 140여개 청소년 쉼터 중 과반(70곳) 이상 청소년 쉼터 종사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배우고,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평동이 꿈꾸는 사회는 아동·청소년 복지 영역에서 더 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지지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종합계획 안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관련 실천을 시작할 수 있었듯,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부터 그 첫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 상담 및 지원

1)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중심에 둔 자립 지원

- 그동안 평동 내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지원이 ‘T-GO’ 프로그램 등 마음 자립에 초점을 맞췄다면, 보다 장기적인 자립 지원은 여전한 숙제였습니다. 지지망 속에서 **다양한 직업 체험/교육의 기회를 개발 및 연결**하여,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역량 강화와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지역의 상담·지원 접근성 강화

- **부산·영남권 지역에 시범적으로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기본적인 상담,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산·영남권은 평동이 그동안 발굴한 지원기관이 많은 지역이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욕구를 확인한 바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한 곳이기에 거점센터 운영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평동은 최소 1곳 이상의 지역 거점을 설립해 인근 청소년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전국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는 또한 그동안 평동과 닿지 못했던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이 될 것입니다.

3) 심리상담 지원의 전문성 강화

땡동의 제1의 목적이자 목표는 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살 및 자해 위기 이슈의 심각성을 알기에, 내부에서 상시적인 위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야간 **24시간 핫라인 도입, 내부 전문 심리상담사 또는 의료인 배치를 통해 전문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또한 최근 성소수자의 자살 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배워가고자 하는 한국 사회 심리상담계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 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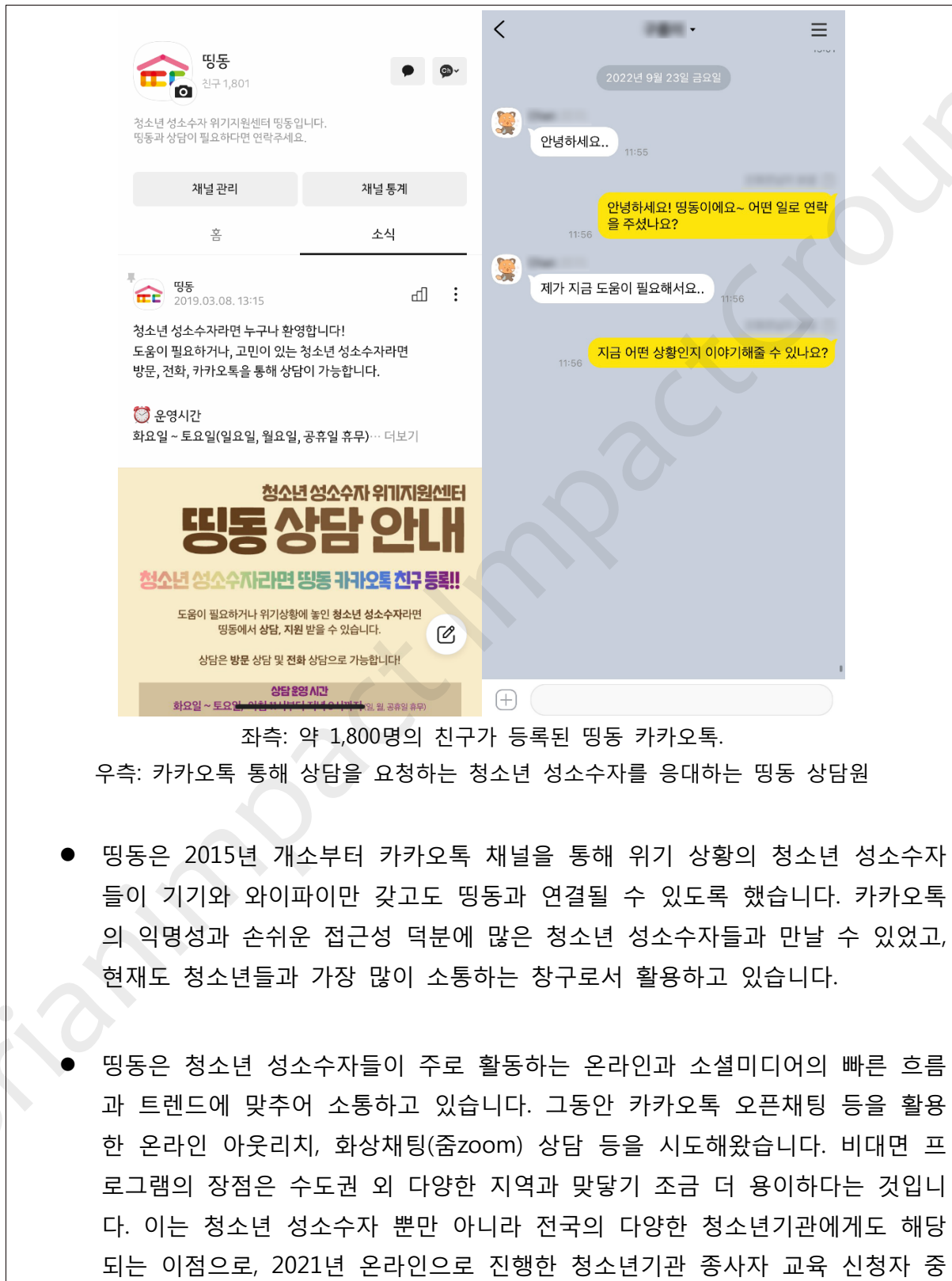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 땡동은 단체의 필요성과 역할에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며, ‘스케일업’을 통해 내부 역량을 높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에서 **2022년 8월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보다 탄탄해진 기반 위에서 땡동은 24시간 주거지원, 진로 및 학습지원, 원스톱 심리상담 지원, 지역 거점센터 설치 등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3년은 땡동의 지속적인 성장기로서, 장기적으로 얻게 된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칠 수 없는 것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조직에서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면, 아무리 재정상태가 좋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땡동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만큼 성별과 세대, 경험 등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직에서 개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업무환경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습니다. 약 2년간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로 <땡동 활동가 평등문화 약속문>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교육과 자문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내부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땡동은 단체 차원에서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꾸준히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 한겨레, 2021.03.11. 상담실 밖으로 나온 심리상담사 600명 "성소수자와 연대"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좌측: 약 1,800명의 친구가 등록된 땡동 카카오톡.

우측: 카카오톡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응대하는 땡동 상담원

- 땡동은 2015년 개소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위기 상황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기기와 와이파이만 갖고도 땡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익명성과 손쉬운 접근성 덕분에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만날 수 있었고, 현재도 청소년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창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땡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의 빠른 흐름과 트렌드에 맞추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아웃리치, 화상채팅(줌zoom) 상담 등을 시도해왔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장점은 수도권 외 다양한 지역과 맞닿기 조금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청소년기관에게도 해당되는 이점으로, 2021년 온라인으로 진행한 청소년기관 종사자 교육 신청자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 외 지역에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인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중요한 접점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땡동은 설립 이후부터 자체 개발한 상담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7년 간의 상담 및 위기지원 기록들을 꾸준히 누적,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하여 기록과 분석을 보다 체계화하고, 향후에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또한 현장 종사자 대상 가이드 등 땡동이 만든 자료들을 필요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향적인 지침만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을 지향하여, 여러 청소년 현장들과 지역을 넘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디지털 장(홈프라이드홈 네트워크, 가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